



현재 수입닭고기 주요 시장, “덴마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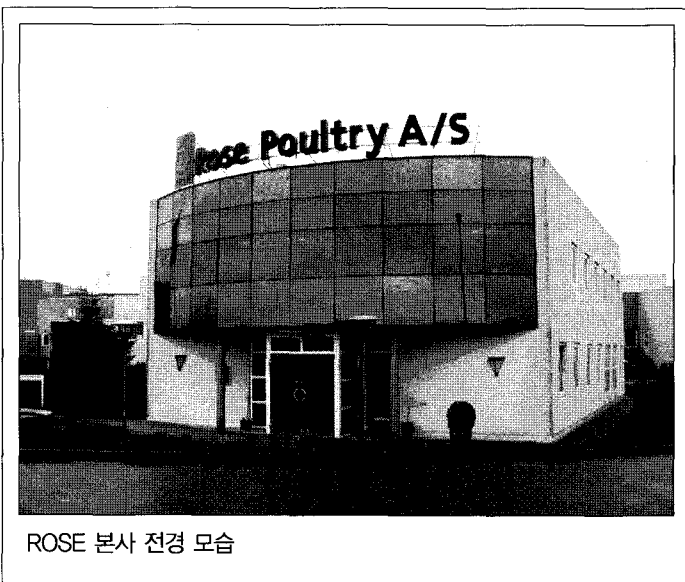
2003년 수입 닭고기의 최대 변수는 당연 ‘덴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인구 500만의 최고의 GNP를 자랑하는 덴마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시장변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ROSE POULTRY A/S사의 경우, 약 55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9월 국내 닭고기 총 수입량은 13,971톤인데, 이중 60% 이상인 8,000톤 정도가 덴마크산 가금육이다.

1. 덴마크의 가금육 산업 현황

현재의 덴마크에서 2002년까지 3개의 가금육 회사가 있었으나, 2003년에는 M&A를 통해서 2개의 회사만이 남아 있고, 수년 내에 1개의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업체에 OEM방식을 위탁하기 시작, 원료육 뿐만 아니라 가공품 전반에 걸쳐 생산을 의뢰하고 있다. DANPO사의 경우가 그



ROSE 본사 전경 모습

예이고, 2010년 내에 ROSE POULTRY A/S로 합병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ROSE POULTRY A/S

덴마크 최대의 닭고기 생산, 수출업체이다.

- 생산량 : 75,000,000수(연간)
- 종업원 : 1,200명
- 생산품목 : 매주 300개 품목 생산, 75% 원료육 판매, 25% 가공품 판매
- 제품특징 : 비교적 스킨에 털이 없어 한국 스펙과 일치하며 통날개의 경우, 70~100gram/pce, 장각의 경우 220~280gram/pce 정도임.



덴마크산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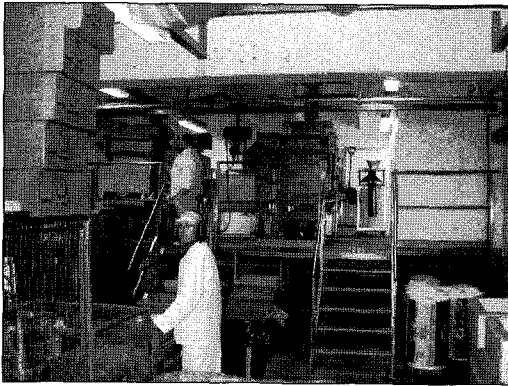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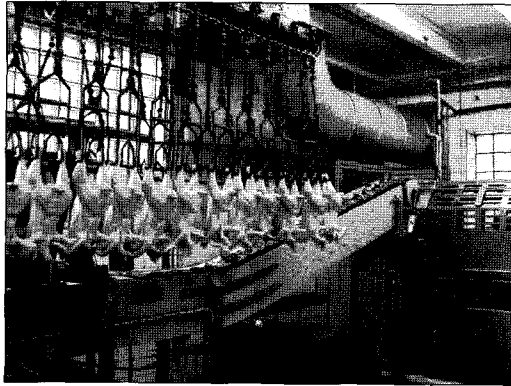
2) DANPO A/S

덴마크 두 번째 닭고기 생산, 수출업체이다.

- 생산량 : 58,000,000수 (연간)
- 종업원 : 1,000명
- 생산품목 : 원료육과 가공품을 시장상황에 맞게 생산하고 있으며, 때때로 경쟁업체인 ROSE POULTRY A/S사에 OEM방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음.
- 제품특징 : 제품에 털이 많아서 발골 작업을 하거나, 원료육 그 자체를 사용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한국 시장에서도 ROSE A/S사의 제품보다 저가로 거래되고 있음.

2. 덴마크 수출업체의 판매전략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그들은 짐작하게 세계시장을 분석하고 있었다.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시장에 대해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각 국별로 가격의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다. 가령 아시아의 경우 통날개의 주요판매처는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였으나, 한국시장에서 급속한 잠재수요를 인식하고 금년 4월부터



ROSE 공장 내부 모습

매월 톤당 200불 가격을 올려 12월 선적분에 가서는 톤당 3,300불에 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닭고기 교역에 있어서 3,300불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가격이지만, 한국의 모 프랜차이즈 본사는 구매를 했고, 덴마크의 판매업자는 20년 해외영업 경력에 새로운 이력을 포함하는 영광을 가졌다. 당시 브라질의 통날개 가격은 1,600~1,800불 정도였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태국시장에서 수입해온 자숙(STEAMED)된 닭고기의 문제점과 시장의 불규칙 흐름을 인식했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입재개가 언제 가능한지를 한국보다 먼저 파악한 후 자신감 있게 가격을 급속히 상승시켰다.

이와 더불어 10월, 덴마크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는 자국의 축산물 관계자와 더불어 축산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자국 상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였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ROSE POULTRY A/S는 2004년에 550억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닭고기 수출업체 또한 위한 덴마크 사례를 보다 면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C